

# 고령의 반룡사와 體元의 화엄사상

채 상 식\*

## 차례

1. 들어가면서
2. 관련자료의 검토
3. 체원의 화엄사상과 특징
4. 고려 후기 관음신앙과의 관련성
5. 맺는말

### 【국문초록】

고령에 소재한 반룡사는 어떤 역사적, 사상·신앙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 글이다. 우선 반룡사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반룡사는 신라 애장왕 3년(802)에 해인사와 같은 시기에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현전하는 반룡사 다층석탑의 조성시기는 문헌자료와 연결하면 고려중기일 가능성이 높다.

반룡사에 관한 문헌자료로서 원 세조가 내린 榜文이 있다. 이 방문을 내린 사찰은 현 반룡사가 아닌 것 같다. 당시 몽고군이 주둔한 창원의 남쪽에 있는 '반룡산'이 주목된다.

한편 「透盤龍如大師序」를 검토한 결과 반룡사를 실제 개창한 인물은 승통 寥一이다. 그는 李仁老(1152~1220)의 大叔으로 화엄종 사찰인 개경의 홍왕사 승통이었으며, 최충헌을 모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 요일이 개경에서 벗어나 반룡사에 정착한 것은 아마 중앙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멀어진 화엄종단의 부흥을 위한 것으로

\* 부산대학교 인문대 사학과 교수

보인다. 곧 반룡사를 터전으로 삼아 인접한 해인사, 법수사 등과 나아가 경상도 지역에서 화엄종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한 것은 아닌가 한다.

한편 충숙왕대에 이르러 반룡사에는 體元이 새로운 주법으로 부임한다. 그는 경주 이씨로서 이제현의 家兄이며, 해인사 사간관에 수종의 자료를 남기고, 『화엄경』을 寫經한 바 있다. 그가 남긴 저술을 검토한 결과 관음신앙을 강조하고 또 이를 통해 공덕과 영험까지도 표방하고 심지어 민간신앙과 결합된 성격을 띤 사상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곧 체원이 중심이 된 14세기의 화엄종은 신앙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불교관을 표방함으로써 한 단계 진전된 화엄사상을 표방하지는 못한 셈이다.

여기서 중심되는 것은 관음신앙이었는데, 당시 불교계의 공통된 사상·신앙적 경향이었다. 대몽항전, 삼별초 항쟁, 동정군의 전란과 이에 계속된 이민족의 지배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현세구원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산물이었다.

본래 관음신앙은 義湘 이래 낙산관음 설화와 결합하면서 전통적으로 일반 민들과 함께 호흡한 소박한 신앙이었다. 이 시기에 오면 관음신앙은 공덕과 영험을 중시하는 신비적인 요소와도 결합하여 사치한 귀족적인 불교로 성행하게 되었다. 곧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러한 산물이 佛壽와 사경, 대규모 불사 등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체원은 의상-균여-수기로 이어지는 화엄종의 실천적이면서 대중적인 경향을 계승한 인물이라고 하겠으나, 그가 관여한 사경 등을 보면 귀족적인 경향과 멀었다고는 볼 수 없다.

#### 주제어

반룡사, 요일, 체원, 관음신앙, 사경, 원세조 방문

## 1. 들어가면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미승산 기슭에 자리잡은 盤龍寺는 신령스러운 용의 기운이 서려있는 곳에 세웠다는 의미로 寺名을 삼았던 것 같다. 이러한 반룡사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애장왕 3년(802년)에 해인사와 같은 시기에 건립하였다고 전하며,<sup>1)</sup> 고려중기 보조국사 지눌

이 증건하고 고려말 나옹선사가 다시 증건하였다고 한다. 그 뒤 임진왜란 때 전소한 것을 사명대사 유정이 증건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 반룡사에 관한 안내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현재 도난과 훼손의 우려로 인해 '대가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반룡사의 다층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7호)과 동종(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88호)은 반룡사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반룡사 다층석탑은 화강암 기단 위에 1층 탑신이 남아 있고 그 위에 점판암으로 만든 옥개석이 다층으로 되어 있다. 이를 석가여래의 사리탑이라고도 하며 일명 수마노석탑이라고도 한다. 이 석탑은 2단의 화강암 지대석 위에 세워진 높이 2.4m의 소형탑으로 단아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보물 제51호), 금산사 육각다층석탑(보물 제27호)과 함께 같은 유형에 속한다. 조성시기는 대체로 고려시기로 보고 있으며, 문헌자료와 연결하여 그 시기를 더 좁히면 고려중기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반룡사는 적어도 고려시기에는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반룡사 동종은 조선 영조 29년(1753)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는 50cm이고 무게는 100근이다. 이 종은 상대 부분에 육자진언을 명기하고 종신에도 명문을 지니고 있으며, 조선후기 동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동종을 통해 조선 영조 때 반룡사가 증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유물 외에 반룡사에 관련된 문헌자료는 없을까. 현재 조선 중기 이전의 관찬사서를 점검한 바로는 관련자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현, 불우, 반룡사 기록과 『拙叢千百』 권1, 「送盤龍如大師序」<sup>2)</sup>가 주목된다.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후기 반룡사의 사정

1) 『朝鮮寺刹史料』 「盤龍寺記」, 조선총독부 내무부, 1911, 383~384쪽에는 해인사를 창건할 때 애장왕이 해인사로 가기 전에 먼저 반룡사에서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해인사를 창건할 당시 반룡사를 함께 창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마저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반룡사에서 활동한 ‘여대사’는 바로 체원이다. 그는 확실한 생존년대와 활약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이유로 등한시되어 온 인물이었으나, 필자가 이미 그에 대해 밝힌 바 있다.<sup>3)</sup> 그는 몇 종류의 註解本<sup>4)</sup>을 남기고 있고, 그가 조성에 참여한 『화엄경』 寫經이 몇 종이<sup>5)</sup> 현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 후기 화엄사상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14세기 불교사의 경향과 사상구조의 단면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로써 문헌자료를 통한 고려시기의 반룡사와 이곳에서 활동한 체원에 대해 부분적이거나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2. 關連자료의 검토

### 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縣, 불우, 반룡사 자료

이 자료에는 반룡사는 미송산에 있으며, 원 세조 때의 榜文과 李仁老·朴孝修·柳方善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방문’

- 
- 2) 『東文選』 권84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일차적인 자료는 『拙藁千百』이다.
  - 3) 蔡尙植,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규장각』 6, 1982;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본고는 반룡사를 중심으로 한 서술이기는 하지만 워낙 자료가 없는 형편이라 체원에 관한 내용은 이전의 연구 성과를 많이 채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4) 體元이 쓴 註解書와 발제를 남긴 판본들은 모두 해인사 寺刊板에 그 판목이 소장되어 있다.
    1. 『白花道場發願文略解』(이하 『略解』로 약칭함)
    2.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이하 『別行疏』로 약칭함).
    3. 『華嚴經觀音知識品』(이하 『知識品』으로 약칭함)
    4. 『三十八分功德疏經』(이하 『功德疏經』으로 약칭함: 體元의 跋題)
  - 5) 『華嚴經』 권13과 권21이 남아 있고(蔡尙植, 앞의 책, 200~2001쪽 참조), 최근에는 권49가 발굴, 소개되었다. 이는 현재 양산 대성암에 소장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다.

황제의 聖旨로 襄行中書省에서 조사하여 받들어 군마가 舍浦에 모두 정착하여 이미 배에 올라 출정하였다. 그 외에 뒤떨어져 머물러 있는 正軍 關端赤人 등이 義安의 상하 丹城 木寨에서 마소를 놓아 기르는데, 진실로 염려되는 것은, 여러 곳의 절을 짓밟고 시끄럽게 굴어 성수를 축원하는 좋은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 하여, 방을 내어 유시하여 금지한다. 만일 공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어 절 안을 짓밟고 시끄럽게 굴어 불안하게 하면, 소재의 관청에 청하여 잡아들여서 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방을 붙여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방을 반룡사에 주어 붙여서 여러 사람에게 유시하게 하여 각각 알게 하라.

이 자료는 몽고군이 일본 정벌을 위해 합포에서 출정하고, 나머지 군사들이 義安(창원도호부) 단성촌 인근에 머물면서 주위의 사찰과 민가를 괴롭히는 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이는 출정은 고려·몽고 연합군에 의한 일본 정벌을 의미한다. 일본 정벌 곧 東征은 두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는데, 위의 자료에 보이는 동정은 충렬왕 즉위년(1274)의 일차 동정으로 보인다.<sup>6)</sup> 이때 몽고군은 屯所를 설치하여 주둔하면서 인접한 사찰에 대해 많은 피해를 끼친 것 같다.

위의 자료에 보이는 '의안'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창원도호부, 고적, 節度使舊營에 “성터가 월영대 북쪽에 있다.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 원 세조가 일본을 정복할 때에 征東行省을 여기에다 임시로 설치하고, 忻都를 보내 몽고병 4천 5백 명을 거느리고 머물렀다.”라고 한 기록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몽고군이 임시로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주둔한 지역은 바로 의안군이며, 조선 태종 때에 창원도호부로 승격된 지금의 창원이다. 이 기록 외에도 몽고와 관련된 의안군에 관한 기록은 제법 남아 있다. 이에 비해 고령 반룡사에 내린 원 세조의 '방문' 외에는 몽고와 관련된 고령

6) 李玠奭, 『『高麗史』元宗·忠烈王·忠宣王世家 中 元朝關係記事의 註釋研究』, 『동양사학 연구』 88, 2004, 106~107쪽.

에 관한 기록은 하나도 없다. 이 방문의 내용을 유추하여 고령에 몽고군의 '落後屯所'가 있었다고 한 견해가<sup>7)</sup> 있으나, 필자는 수증하기 어렵다. 이 방문을 내렸다는 반룡사가 고령에 위치한 사찰이 아니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원 세조가 몽고군들에게 경계토록 한 방문을 반룡사에 내려 주위에 유시토록 한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당시 반룡사의 사격은 대단히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점으로 보면 고령의 반룡사가 방문을 유시한 바로 그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가지 의문은 몽고군이 주둔하고 있던 의안군과 반룡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사실이다.

당시 창원도호부에는 임시로 정동행성을 설치할 정도로 동정의 중심 지역인데 비해, 고령은 몽고군의 둔전(둔소)이 설치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방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창원에 주둔하고 있던 몽고군이 고령 근처의 사찰들에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 창원의 남쪽으로 곧 진해만 방향에 '반룡산'<sup>8)</sup>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후대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만들면서 착각을 한 것은 아닌가 한다.

물론 『여지도서』를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읍지류<sup>9)</sup> 등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高靈郡邑誌』(1899년, 규장각 소장 10830) 佛宇, 盤龍寺에는 원 세조의 방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말에 만든 읍지에 그 이전까지 기재된 내용을 삭제한 연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선 원 세조가 방문을 내려 유시토록 한 반룡사가 고령의 반룡사는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선에서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로 남긴다.

7) 李玠爽, 위의 논문, 107쪽.

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昌原都護府, 산천조에 부의 남쪽 7리에 盤龍山이 있다고 한다.

9) 『邑誌』 1(경상도 편 1,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82.

한편 반룡사에 시를 남긴 李仁老·朴孝修·柳方善 등에 대해서도 반룡사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중 유방선은 조선 태종대에 유배형에 처해진 인물로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데, 같은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유방선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아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비해 이인로는 「送盤龍如大師序」의 기록에 보이는 승통 寥一의 조카이기 때문에 반룡사와는 인연이 있었던 인물로 판단되며, 이런 연유로 반룡사에 시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박효수는 『고려사』 권109 열전 22, 尹莘傑에 부기로 입전되어 있는데, 『고려사』 기록 중 그에 관한 중요한 기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박효수는 평소 깨끗한 지조가 있었다. 여러 관직을 거쳐 벼슬이 代言에 이르렀다. 윤신걸을 대신하여 선비를 선발하게 되자 (충숙)왕이 그의 그 청백함을 가상히 여겨 銀瓶 50개와 쌀 백 석을 내주어 學士宴을 치루게 하였다. 이로써 박효수의 맑은 절조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후에 延昌君에 봉해지고 졸하였다.(권109, 열전 22, 尹莘傑 朴孝修)
2. 충숙왕 7년(1320) 9월 계미에 崔龍甲 등이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는 李齊賢과 박효수가 선발한 과거였다. 왕이 박효수의 청백한 품성을 가상히 여겨 은병 50개와 쌀 백 석을 내려 학사연을 차리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권35 세가 35)<sup>10)</sup>
3. 충숙왕 8년(1321) 12월 丁未에 白元恒과 박효수 등이 妙覺寺에 모여 (원의) 中書省에 글을 올려 上王 곧 충선왕을 돌려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권35 세가 35)<sup>11)</sup>
4. 충숙왕 복위 6년(1337) 9월 壬寅에 연청군 박효수가 졸하였다.(권35 세가 35)
5. 충숙왕 4년(1317) 박효수가 九齋 朔試의 고시관이 되어 金玄具 등을 선

10) 『高麗史』 권73 選舉 1, 충숙왕 7년 6월에 이제현을 고시관, 박효수를 동고시관으로 하여 진사를 선발한 기록이 있다.

11) 『高麗史』 권87 年表 2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다만 上王을 大尉王으로 표기하고 있다.

받았다.(권74 선거 2)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박효수는 충숙왕대에 국자감시와 예부시의 고시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며, 그가 공정하게 과거를 관장한 행적을 기리기 위해 왕이 직접 은병과 곡식을 내려 학사연을 열게 할 정도로 청백리였다. 곧 원간섭기의 사정으로 볼 때 신흥사족에 가까운 인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물인 박효수가 반룡사에 시를 남겼을 때에는 어떤 연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시관인 이제현과 함께 부책임자로서 과거를 관장한 점과, 충선왕의 귀국을 요청하는 글을 원의 중서성에 올렸다는 점이다. 곧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반룡사의 주법으로 초빙되어 온 體元이 이제현의 家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충선왕-이제현-체원 등의 유대가 박효수로 하여금 반룡사에 오게 하고 이를 계기로 반룡사에 시를 남긴 것으로 정리가 된다.

## 2) 「送盤龍如大師序」의 검토

이 자료는 崔瀼가 쓴 글인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에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룡정사는 내가 보지 못했다. 젊어서 李眉叟 시를 뒤져보니, 시(집) 가운데 (그의) 큰 숙부 關梨와 더불어 주고 받은 작품이 있었으며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시들은 능히 거두어 수록한 것으로 칭송할 만하다. 처음에 사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몸을 맡겨 승려가 되었고 행위가 독실하여 사대부가 미치지 못하는 인물 정도로 생각했다. 뒤에 이씨의 인척을 만나 물으니 (사리는) 실로 반룡사를 개창한 승통 一公<sup>12)</sup>이었다. 반룡사는 부처를 배우는 자가

12) 一公은 이인로의 大叔인 화엄종 승려 寥一을 가리킨다. 요일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활동상황으로 보아 1200년대 전반으로 추정된다. 『高麗史』 권129, 최충헌전에 의하면 요일은 興王寺 僧統으로서 中書令 杜景升과 함께 최충헌을 모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



자포자기에 빠져있음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 하니, 또 배움에 힘을 기울인 것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 문도들이 대대로 법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아 반룡사는 지금까지 동방의 화엄대도량이 되었다.

泰定 초 元傳賢首教觀 大沙門의 여러 講主는 반룡사에 주범할 이가 없었으므로 덕망있는 이들의 청에 따라 法水堂頭 覺海如公을 추천하고 또한 都僉議使司에 고하니 첨의도 허락하였다. 이에 여공도 군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장차 날을 정해 가기로 하였으므로 나는 그와 이별을 하러 갔다. 손님 가운데 韻을 나누어 시를 지어 증정하는 자가 있었는데 먼저 나에게 序를 짓도록 부탁하였다.

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儒를 알고 佛을 모르면 부처가 되는 길을 말할 수 없고, 불을 알고 유를 모르면 능히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13)</sup> 그러나 세상에서 부처를 말하는 자는 “부처가 되려면 먼저 모름지기 (부모와의) 친애를 끊어야 한다”고 하였다. 무릇 인간의 도리는 부모를 친애하는데서 근원하였으니 부모와 인연을 끊으면 사람이 아닌데 누가 佛者가 되겠으며, 이로써 부처를 구한들 깨닫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에 일공이 외로운 몸으로 마침내 그 門을 크게 일으켰으니 과연 친한 마음을 끊은 것이겠는가. 부모를 친애하는 마음은 모든 행위의 바탕이다, 따르고 행하면 유교나 불교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컨대 社를 맺고 무리를 모아 眞乘을 천명한 지 더욱이 오래되고 큰 것은 이를 연유로 하지 않음이 없다.

여공은 어려서 머리를 깎고 選佛場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대위상왕에 알려져 승직을 높이고 명찰을 제수받았으나, 부모가 늙어 차마 옆을 떠나지 못하였다. 탕약은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으며,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형제간의 우애를 다하였으니 대개 孝悌는 천성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비록 그가 부처를 배웠지만 나아가고 머무름에 선후가 있음을 알았으니 지금 一公의 도량에서 향화를 더욱 새롭게 하고 범리를 크게 떨치는 자는 그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공을 추대하니 다른 말이 없을 만하다. 나는 이른바 불교를 알고 유교를 아는 사람은 두 분일 것으로 생각한다.<sup>14)</sup> 그러므로 내 뜻을 글로 써서 서문을 만들었으니 미치지 못한 바는 다른 사람이 지을 것이다. 師는 東菴 李文定公<sup>15)</sup>의 둘째 아들이며 지금 王府斷事官國相 益齋公의 형이다. 친교 맺기를 좋아하여 당대

13) 본문에 “余嘗謂 知儒而不知佛 不害爲佛”이라 한 것 중 ‘害’는 『東文選』 권84에는 ‘言’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東文選』의 기록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14) 寥一과 如公 곧 체원을 가리킨다.

15) 동암은 文定公 李瑱(1244~1321)을 가리킨다. 『高麗史』 권109, 이진전을 참조.

이름난 귀공자인 淮安君과 그 아우 昌原君<sup>16)</sup>같은 이도 모두 師를 경애하였다.

이 자료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반룡사를 실제 개창한 인물로 승통 寥一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는 최해가 반룡사의 새로운 주법으로 추대된 '여대사'를 위해 이 글을 썼고 여대사는 이제현의 家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요일과 여대사는 승려로서 유학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우선 요일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李仁老(1152~1220)의 大叔(숙부)으로 화엄종 사찰인 개경의 흥왕사 승통이었던 인물이다. 그는 『고려사』 권129, 최충헌전에 의하면 중서령 杜景升과 함께 최충헌을 모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세속의 출신이 仁州李氏인 그는 화엄종의 승려로서 승통에까지 이르고 개경의 흥왕사를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당시 최고 집정자인 최충헌에게 대항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단한 정치적·종교적 기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가졌던 인물인 요일이 개경에서 벗어나 반룡사에 정착하여 반룡사의 사격을 크게 높인 연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반룡사라는 일개의 사찰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인접한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 법수사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본다. 또한 위의 글에서 요일 이후 반룡사는 그의 문도들이 대대로 불법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아 동방의 화엄대도량이 되었다는 내용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곧 요일은 중앙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멀어진 화엄종단의 부흥을 위해 반룡사를 터전으로 삼아 인접한 해인사, 법수사 등과 나아가 경상도 지역의 화엄종 소속 사찰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한 것은 아닌가 한다. 이는 원간섭기에 반룡사의 주법으로 발탁된 여대사가 활동하던 반경을 미루어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뒤에 언급할

16) 회안군과 창원군은 평양공 王基의 후손으로 각각 王珣과 王瑀를 가리킨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거가 보이지 않지만 왕순과 왕우의 할아버지인 王澗은 帶方公으로 충렬왕 원년 원의 독로화가 되었다(『高麗史』 권90, 평양공 왕기전).

여대사 곧 체원이 반룡사에 주법하면서도 ‘해인사사문’임을 명기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어떻든 반룡사는 최충헌 집정기에 화엄종의 고승인 요일이 이곳에 주석하면서 사격을 높인 사찰로 보인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반룡사조에 수록된 이인로의 시와 현전하는 반룡사의 다층석탑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반룡사에는 충숙왕대에 이르러 화엄종의 원로들이 의논한 뒤 ‘法水堂頭’인 ‘覺海如公’을 추천하여 주석케 했다는 내용과 ‘여공’이 경주이씨로서 이제현의 가형이라는 출신과 활동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각해여공’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자. 그는 해인사 사간관에 수종의 자료와 몇 점의 『화엄경』 사경을 주도한 바 있는 體元과 같은 인물이다.

崔瀟가 쓴 「盤龍如大師序」에 보이는 ‘여대사’가 체원임을 알려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체원의 異名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열거하기로 한다.

1. 寓出現盤龍社佛華閣 海印寺沙門 木庵向如體元謹沐手焚香題(『知識品』跋文)
2. 海印典炫 覺海大師木庵體元題(『功德疏經』跋文)
3. 泰定初 元傳賢首教觀 大沙門 諸講主 因耆宿請 咸以社無主法 推出法水堂頭 覺海如公(「送盤龍如大師序」)

위의 자료 1과 2를 종합하면 그의 法名은 體元, 法호는 木庵, 向如라고도 했으며 覺海大師의 諡號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자료 3에 보이는 泰定初(1324~1325, 충숙왕 11~12년)에 화엄종단의 청에 의하여 盤龍社의 주법으로 추천된 인물인 法水堂頭 覺海如公은 바로 자료 1, 2에 보이는 覺海大師 向如, 곧 체원을 가리킨다.

그러면 「送盤龍如大師序」를 중심으로 체원의 출신과 활약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체원은 본관이 경주인 李瑱(1244~1321)의 둘째 아들이며 李齊賢(1287~1367)의 바로 위의 家兄이다.<sup>17)</sup> 그의 가계는 고려 초 이래 경주의

향리층이었으며 무신란 이후 同正職을 받음으로써 서서히 부각되었다. 원간섭기에 와서 李瑱이 출현하여 입사함으로써 『고려사』에 입전될 정도로 문신관료로서의 위치를 굳힌 집안이다. 체원은 이제현의 바로 위의 형이므로 그의 출생년은 이제현의 출생년인 1287년보다 몇 년 빠른 1280년대 초·중반일 것이다.

체원은 20세 전후에 삭발하고 選佛場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며, 한때 太尉上王, 즉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僧秩이 높아지고 명찰의 주지직을 제수받기도 하였으나<sup>18)</sup>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거절하기도 했던 것 같다. 그가 남긴 주해본의 발문을 통해 체원은 균여 계통을 계승한<sup>19)</sup> 화엄종 승려로서 그가 활동한 사찰들은 해인사를 중심으로 인근의 法水寺, 盤龍社, 경주의 東泉寺 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체원의 만년의 활동상을 말해 주는 자료로서 그가 주도하여 사경한 『대방광불화엄경』 권21의 발문이 주목된다. 본 사경은 紅紙에다 銀字로 조성된 것인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조성년대는 충숙왕 복위 7년(1338)이다. 본 사경의 발문에서 사경한 공덕주는 向如 즉 체원이며, 그가 1338년에는 兩街都僧統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발문에 보이는 단월들은 추측컨대 개경의 권문세족이라기보다 체원이 주로 활약하던 해인사, 반룡사, 법수사 등지의 승려와 인근에

17) 『高麗史』 권109, 李瑱傳에 그의子を 綰, 齊賢, 之正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體元에 대한 언급이 없다. 『高麗史』는 왕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려가 된 자를 列傳에 기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送盤龍如大師序』에 체원을 이제현의 家兄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崔瀼(1287~1340)가 이제현과 각별한 교류를 가졌던 인물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최해가 남긴 기록은 신빙성이 크다.

18) 충선왕은 퇴위 후 太尉王으로 봉해졌으며 충선왕과 李齊賢과의 긴밀한 관계로 미루어 그의 재위시에 體元이 일시 총애를 받은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

19) 『高麗大藏經』 補遺板에 남아 있는 均如 저술의 跋文에 의하면 반룡사, 해인사, 法水寺, 東泉寺 등의 사찰이 보이는데, 이들은 均如 저술의 조판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義湘→均如→天其·守其로 계승되는 화엄종 일파의 중심 사찰들이다.

거주하던 은퇴한 관료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그가 참여하여 사경한 『화엄경』 권13(호림미술관 소장)은 60화엄으로 감지에 銀字로 사경한 것이나 “住持大師 向如 補書”라는<sup>20)</sup> 명문밖에 남아 있지 않기에 조성 배경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경상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90호로 지정된 금은니로 사경한 『화엄경』 권49이 체원이 보서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이 자료는 학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기에 필자가 붙인 해제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현재 양산 대성암에 소장되어 있으며, 감지에 금은니로 필사한 것이다. 수량은 1권(18장)이며, 조성시기는 충숙왕 16년(1329년)으로 규격은 27.5×818.3cm이다.

본 사경은 冊本 『화엄경』 60권 중 49권으로 入法界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두루마리 형식의 卷子本으로 표지를 포함하여 총 18장이 연결되어 있다. 종이의 연결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서체와 재질에 차이가 나며, 보존상태가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다.

표지 부분은 4륜의 金泥寶相唐草華文이 장식되어 있고, 가장자리 사방에는 2조의 금선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는 세로로 긴 장방형의 이중 윤곽선 안에 금자로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九”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그 아래쪽 하단에는 원형 테두리 내에 冊本임을 표시하는 “冊”이라는 金字가 적혀 있다. 그리고 권말에는 “天曆二年己巳五月 日寺住持大師 向如補秩書”라는 금자명이 있어, 천력 2년 곧 고려 충숙왕 16년(1329년)에 向如가 補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여가 보서하기 이전 처음 조성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본문의 각 행간은 금선으로 구획하고, 1행마다 17자씩 배열하고 있다. 표지에 해당하는 제1지는 본문에 비해 비교적 감색이 짙게 염색된 편이다. 제2지는 紺地金字로, 제1지에 비해 감색의 농도가 얇은 편이다. 제3지~제18지까지는 감지은자인데, 특히 제4지의 경우는 산화된 銀字 위에

20) 李基白 편,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제2판), 일지사, 1993, 292쪽.

2/3정도 다시 은자로 가필한 흔적이 보이며, 제5·6지의 경우에도 1/10정도 은자의 가필 흔적이 확인된다. 그리고 제15·16·17지의 경우 은자의 글자 주변에 번진 유분흔이 있다.

전체적으로 제1지와 제18지는 배접이 비교적 두껍게 처리되었으며, 염색의 농도로 미루어 동일한 재질로 판단되며, 그 외 제4지~제6지와 제8지~제13지는 배접이 안 된 얇은 상태이며, 감색의 농도 또한 옅은 편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한 재질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14지는 글자 주변에 번진 자국이 없으며, 염색의 농도는 짙은 편이다.

본 사경은 권두부터 권말에 이르기까지 전부 동일한 서체가 아니고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이는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처음 조성한 것과 충숙왕대 향여가 보수 가필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니가 산화된 부분은 다시 은니로 가필하고 있어 산화된 부분과 가필한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본 사경은 원래의 상태를 전부 갖추지 못한 것이긴 하나, 고려시대 사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14세기 초반기의 화엄종단에서 해인사 못지않게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있었던 사찰은 반룡사이었으며, 이때 핵심되는 인물은 체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체원을 충숙왕 11년(1324)에 반룡사의 주법으로 임명할 때 ‘法水堂頭’, 즉 法水寺의 우두머리로 표현하고, 체원을 화엄종 내부에서 추천한 후 都僉議使司의 결정을 얻어 반룡사의 주법으로 등장시키는 절차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체원은 40세 전후, 곧 1320~1330년대에 반룡사의 주법으로 있으면서 해인사를 중심한 화엄종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해인사에서 몇 종의 주해서와 『功德疏經』을 간행하고, 또 그의 말년에는 여러 차례 『화엄경』의 사경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체원의 화엄사상과 특징

#### 1) 저술의 검토

체원의 저술은<sup>21)</sup>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저술에 대해서 ‘集曰’의 형식으로 주석을 가한 것들이다. 그의 저술을 저작, 간행년 순서로 검토하기로 한다. 그의 저술 중 맨 먼저 저술된 것은 『別行疏』이다. 이는 般若가 漢譯한 40화엄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중에서 28번째로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이 설하는 법문(권16)에 대해 唐의 澄觀(738~839)이 붙인 疏에다 ‘集曰’의 형식으로 주석을 가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발문이 없으나 『약해』 발문에 의하면 1328년 『약해』를 저술하기 전에 『별행소』 2권을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화엄경』의 관음신앙에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체원의 家兄으로 불린 忍源과 同學의 우애에 보답하기 위해, 또 위로는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여러 중생에게 널리 법을 펴기 위해 『별행소』를 집해, 간행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체원의 사상적 경향은 『별행소』를 집해하면서 비록 훈고적인 澄觀疏를 가장 많이 이용하긴 했지만 실천신앙적인 성격을 띤 관음신앙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서 영험과 감응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체원이 관음신앙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과 관련될 것이다. 14세기 전반의 고려사회는 원간섭기로서 이민족에 의해 전국토가 유린되고 또 이들과 결탁한 권문세족에 의해 일반 민들이 고통 속에 처해 있었다. 현실적인 구원을 표방한 신앙 중 대표되는 것이 관음신앙이라는 점을

21) 『華嚴一乘法界圖記叢髓錄』을 체원이 저작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으나(金知見, 「新羅華嚴學의 系譜와 思想」, 『학술원논문집』 12, 1973, 42쪽) 잘못된 견해이다. 이 판본은 고려대장경의 補遺板 중 庭函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 조성시기와 체원의 생존시기와는 무려 100년에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원의 저작이라고 할 수 없다.

감안할 때, 채원은 義湘 이래의 화엄종이 표방한 실천신앙의 측면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천신앙의 예를 영험이라는 신비적인 면을 통해서 강조한 점은 이전의 화엄종과 비교할 때 그 사회적 기능이 이전에 비해 한 단계 퇴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略解』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白花道場發願文』은 의상이 낙산사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에게 발원하면서 찬한 것인데, 이를 채원이 『별행소』를 저작한 뒤 관음신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저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줄여 해석하였을 것이다.

『백화도량문』은 현재 따로 전하기 않고 본 『약해』에 남아 있는 것이 전부이다. 『약해』는 忠肅王 15년(1328) 10월에 해인사에서 저작되었으며 『별행소』와 같이 覺華寺 주지이던 性之가 교감하였다. 우선 여기서 지적할 점은 『약해』의 간행에 참여한 단월들에 대한 것이다. 이는 충숙왕 복위 3년(1334) 7월에 계림부에서 개관되었는데, 간행에 관련된 인물들은 우선 승려로는 刻手인 甫英과 東泉社의 善珣, 雞林府尹으로 蔚州事와 勸農使를 겸한 盧□□, 그리고 경주의 향리인 崔沚, 李奇, 金神器 등이다. 盧□□는 盧愼인데, 지방관인 노신과 승려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주의 향리들이다. 채원의 다른 저술들도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간행된 것으로<sup>22)</sup> 추측되는데, 이는 채원이 경주 출신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약해』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구성은 서와 본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는 義湘의 전기를 소개한 것이고, 본론은 題名에 대한 해석과 본문에 대한 釋文으로 되어 있다.

22) 채원의 저술 중 『略解』 외에는 그 조성처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시기와 조성수법이 같은 점으로 보아 모두가 경주 토호의 지원에 힘입어 판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약해』의 발문에 보이는 崔, 李, 金氏가 경주의 土姓이며(『世宗實錄地理志』 권150, 慶州府 土姓條), 14세기 경주의 戶長의 姓이라는 점(『戶長先生案』 서울대 古圖書; 許興植編,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1976)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의상의 전기를 소개한 것을 살펴보면 ‘의상의 당시 행적과 신이는 모두 최치원이 찬술한 本傳에 실려 있다’라고 한 구절로 미루어 최치원이 지은 義湘本傳의 내용 중에서 채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상의 전기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는 贊寧이 찬한 『송고승전』(988년)과 최치원의 『부석존자전』을 들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현전하지 않지만 고려후기까지 존재했던 것 같으며, 이는 『三國遺事』에 보이는 ‘相傳’, ‘義湘傳’, ‘崔侯所撰本傳’ 등의 구절에서 짐작된다. 체원의 경우도 최치원의 찬술을 참고했으며 『삼국유사』와는 달리 설화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의상의 전기만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본론은 題名과 正文에 대한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본문적인 正文은 첫째, 能所觀, 곧 주·객관을 떠나 歸敬함을 밝힌 부분, 둘째, 관음보살에게 보리과를 이루기 위해 발원하는 부분, 셋째, 관음보살에게 結歸投仰하고 회향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은 ‘백화도량발원문’이라는 제명을 해석한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백화도량에 머물면서 보살행과 보살도를 표방하는 관자재보살에게 발원함을 내용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약해』의 내용은 義湘이 관세음보살을 본사로 받들면서 관세음의 보살행과 보살도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여 정토, 곧 백화도량에 受生함을 발원한 것이다. 체원의 경우도 의상이 표방한 정토로의 중생구제라는 현실적·실천적 관음신앙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본 『약해』를 저작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약해』보다 먼저 저작된 『별행소』가 실천신앙으로서 관음신앙을 강조하고 그 예로서 영험과 감응을 제시했다면 『약해』는 실천신앙의 예를 신라의 화엄종 개조인 의상에게서 찾으려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은 체원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觀音知識品』에 대해 살펴보자. 『지식품』은 종래에 『별행소』와 함께 취급되기도 했지만, 체원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저작으로서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지식품』은 그 발문에 의하

면 『약해』보다 3년 뒤인 충혜왕 원년(1331) 10월에 저작되었으며, 간행은 비슷한 시기인 1334년대인 것 같다. 최근에 해인사 사간관 전체를 인출할 때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유행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지식품』은 완전한 것은 아니며 후반부만 남아 있다. 첫 부분은 40화엄 권16의 중간 부분, 즉 관자재보살의 법문을 선재동자가 듣고서 찬탄하는 계송 중 15구절(云何我以微劣智)부터이며 마지막은 『별행소』와 마찬가지로 선재동자가 물러가는 장면(敬承其教 辭退而行)까지이다. 이와 같이 『지식품』은 일부만이 현존하며 40화엄 권16의 내용을 그대로 판각한 것으로 단지 頭註를 달고 있을 뿐이다. 두주는 마멸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식품』을 판각한 의도는 체원이 쓴 발문에서 알 수 있다.

대저 나의 家兄인 月光大師 源公은 깊이 大聖을 믿어 별도로 華嚴經의 大聖이 설한 바를 絜송하고 널리 道俗이 受持하기를 권유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근래에 山人에게 經下에 錄疏하기를 명하므로 조판을 이미 마치고 또 따로 한 권을 필사하여 受持用 경전을 삼았으며 장인을 모아 판각하여 이에 奉持者에게 편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인용에서 『지식품』은 『별행소』를 조판한 뒤 따로 한권을 필사하여 持誦용으로 삼았다가 奉持者들로 하여금 편하도록 하기 위해 판각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지식품』은 『별행소』에 대한 일종의 持誦本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체원이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跋題를 붙이고 있는 『三十八分功德疏經』에 대해 살펴보자. 『공덕소경』은 『지식품』을 저작한 두 달 뒤인 1331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僞經이다.<sup>23)</sup> 우선 체원이 쓴 발문을

23) 필자가 조사한 바 『三十八分功德疏經』이라는 책명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책은 내용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佛菩薩을 순하면 功德이 무궁하며, 더욱 타인을 위해 體念하면 그 이익이 만배에 달한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보살이 타인을 이롭게 함은 도리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하니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이 경은 위로 靈官을 위하고 아래로 三途를 가엽게 여기는데, 尊號를 體念하면 이익이 聖凡에 두루 미치고 영험이 자못 많다. 이것을 세간에 행하고 諸冥扶에 바라니 마땅히 정토에서 불을 보고 법을 들음이 어찌 이에서 말미암지 않겠는가. 舊本은 26分이나 후에 願德이 보충하여 첨가한 分이 있으니 모두 높은 바가 있다. 나의 家兄인 月光普應大師源公은 별도로 觀音大聖을 믿어 靈官 및 諸苦類를 위해 대신 諸聖을 순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아름답고 착하다. 지극한 정성이 넉넉한 바이니 어찌 災患이 사라지지 않겠으며 원하는 것이 따르지 않겠는가. 임금의 수명과 국가의 복을 빌고 도를 이루며 중생을 제도함이 이 밖에 있지 않다. 장인을 모아 조관하여 널리 道俗에게 권하며 나는 家兄의 勝心을 도와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쓴다. 至順 2년 辛未 겨울 12월 일 海印典柱 覺海大師木庵 體元이 題하다. 施主 月光大師 忍元이 誌하고 같은 발원으로 海印大師 向如가 쓴다.

이상의 발문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염불을 강조하고 있다. 곧 염불을 통한 공덕이나 영험에 의해 정토에 반드시 나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공덕소경』은 본래 26分이었으나 38分으로 첨가·보충하였다는 점, 셋째, 체원의 숙부인 忍源(元)이 관세음신앙에 심취하면서 따로 여러 聖者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점, 넷째, 道俗에 널리 전하기 위해 관각한다는 점, 다섯째, 당시 해인사를 중심한 화엄종에서 염불신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덕소경』은 염불과 靈官이나 聖者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공덕과 영험을 통한 淨土에로의 발원이 주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위의 발문에서 ‘代念諸聖’이라 한 ‘聖’과 ‘靈官’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덕소

華嚴神衆道場과 관련하여 13~14세기에 고려에서 만들어진 僞經으로 생각된다.

경』의 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옛날 西蜀大王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키가 한 척쯤 되는 승려가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옛날부터 26分 功德疏를 勸念함은 곧 諸如來와 諸尊菩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왕이 受持하고 念하며 널리 인민에게 書寫하기를 권하도록 정한다. 매일 清朝에 입을 맑게 하여 독송하고 一遍을 持念하면 天曹地府諸司靈官에 廻向하여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고 천상의 인간으로 왕생을 얻는다. 지극한 마음으로 백일 동안 持念하면 반드시 陰神이 상조하여 현세에 무량한 복된 보응을 얻는다. 가족이 유행하는 惡病과 여러 障難에 물들지 않고, 本命日에 이르러 일편으로 轉念하고 功德과 錢財와 疏를 지어 天曹地府에 奏上한 것은 바로 功德案에 수록되어 무릇 뜻대로 구하고자 하는 모두가 마침내 그대로 얻어진다.

여기서도 ‘염불’, ‘서사’, ‘독송’을 통한 공덕을 강조하는데, ‘天曹’, ‘地府靈官’, ‘陰神’ 등의 존재들이 보인다. 이러한 존재들은 『공덕소경』의 본문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곧 본문에서 불보살의 명호와 대비되는 ‘天曹府君’, ‘地府靈官’, ‘北極尊君’, ‘星官’, ‘冥間諸司官’, ‘五道將軍’ 등은 추측컨대 전통적인 민간 신앙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민간신앙이 불교화 하는 과정에서 화엄종의 염불신앙과 결합된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민간신앙을 수용하면서 염불의 공덕과 영험을 강조하고 또 정토로의 발원을 주 내용으로 한 『공덕소경』이 14세기 해인사를 중심한 화엄종에서 간행, 유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화엄종의 경향뿐 아니라 전 불교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특히 『공덕소경』에서 관세음보살을 화엄종이 주 보살로 삼은 문수·보현보살보다 우위에 취급한 태도도 주목된다.

이상에서 관음신앙을 강조하고 또 이를 통해 공덕과 영험까지도 표방하고 심지어 민간신앙과 결합된 성격을 띤 염불신앙을 수용하는 사상적 경향을 보인 체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에 관한 더 많은 자료들이 보충된다면 그의

사상적 경향에 대한 실체가 보다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선 자료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그의 화엄사상의 특징

14세기 전반기의 해인사를 중심한 화엄종의 특징은 관음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영험과 공덕신앙을 표방했다는 점, 또한 민간신앙까지도 적극 수용하여 신비적 성격을 띤 염불신앙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종래의 화엄사상 체계 중에 신앙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며 다분히 현실구원적인 경향을 띤 것이 아닌가 한다.<sup>24)</sup>

그러면 이러한 경향을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특정 신앙이나 사상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며 그 사회의 요청에 의한 산물이라는 점, 둘째, 특정 신앙과 사상 자체가 갖는 역사성, 즉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 계승되고 표방되었는가 하는 점, 셋째, 이러한 사상적 조류가 적극 수용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신앙과 사상은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4) 李萬, 「高麗時代의 觀音信仰」, 『韓國觀音信仰研究』, 동국대 출판부, 1988, 147~148 쪽에서는 弘眞國尊 惠永이 관음신앙을 밀교적인 관점에서 淨土化하려는 반면에, 體元은 신라의 의상교학에서 관음신앙의 실천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鄭炳三, 「高麗後期 觀音信仰」, 『丹豪文化研究』 창간호, 1996, 85쪽에서도 이에 동조하면서 덧붙여 “고난 구제 신앙의 대본이 되는 보문품의 관음에 비해 입법계품의 관음은 보살행의 실천이라는 면이 강하다. 화엄사상가로서 체원이 단순한 현실구원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진지한 실천구도행으로서 화엄경에 바탕한 관음신앙을 제시하였고, 체원의 이와 같은 제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14세기의 고려 후기 사회에 실천구도행의 관음신앙이 상당한 기반을 가졌음을 알게 한다.”라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수긍하는 바 없지 않지만, 14세기 고려불교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영험과 공덕뿐이라고 할 만큼 신비적이고 밀교적인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체원도 이러한 분위기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발문을 쓰면서 간행한 『공덕소경』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곧 체원이 중심이 된 14세기의 화엄종은 당시 불교계의 관도로 볼 때 해인사를 중심한 지방사회에서 신앙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불교관을 표방함으로써 존속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관음신앙을 강조한 것은 의상 단계의 불교대중화 과정에서 이미 체계화된 신앙을 계승한 것이다. 또 민간신앙을 수용함으로써 신비적인 성격을 띤 염불신앙을 표방한 것은 대몽항전기의 神衆道場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체원을 중심한 14세기 전반기의 화엄종은 신앙적 측면의 노력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요청하는 현실구원적인 측면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였으며, 그런 중에 민간신앙을 수용함으로써 화엄종의 신앙적인 요소와 결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과 심지어 신비적인 영험과 공덕을 강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면서, 이와 병행하여 한 단계 진진된 화엄사상을 표방하지는 못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회와 불교계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해인사를 중심한 14세기 화엄종이 갖는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고려사회에서 핵심되는 종파 중의 하나인 화엄종의 이러한 모습은 원간섭기에 있어 사상적으로 전환을 맞이하는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시기에 비해 14세기에 왕실이나 권문세족들에 의한 사경과 불화의 제작이 두드러진 다든가, 해안이나 도서지역에서 埋香信仰이 유행한 사실과도 맥락이 닿으며, 더욱이 이는 밀교 계통으로서 신비적인 성격이 강한 원의 라마불교의 말파적인 분위기에 의해 더욱 상승되었을 것이다.

#### 4. 고려 후기 관음신앙과의 관련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체원의 저술과 사경 활동을 통해서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14세기 전반의 고려사회가 처해 있던 역사적 현실과 함수 관계에 있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원에 의해 예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권문귀족들에 의해 정치권력이 세습적으로 장악되고 있었으며,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이들에 의해 대규모의 토지가 독점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유리되고 또 권문귀족들의 사민으로 전락되는 현실이었다. 또한 왕실과 권문들은 그들대로 많은 원당을 건립함으로써 이를 통해 면세지의 사원전을 확대하는 추세였으며 나아가 불교계의 교권까지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배세력과 기층사회간의 사회적 간격이 확대일로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를 불교사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소수의 지배계층과 기층민 사이에 불교의 사상과 신앙체계를 공유함으로써 맺어진 유대 또는 일체감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13세기 초반의 신앙결사 단계에서 지방사회의 향리층, 독서층이 불교계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여 공유하게 된 사회적 유대를 해체하고, 개인이나 특정 계층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불교를 전유하는 단계로 전락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계가 보수화되어 가면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상실해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교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지배계층과 기층민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현세기복적이고 타력신앙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대변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당시 매우 성행한 관음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음신앙은 체원의 불교관을 통해 본 화엄종의 경향일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계의 공통된 사상적·신앙적 경향이었다. 이는 대몽항전, 삼별

초 항쟁, 동정군의 전란과 이에 계속된 이민족의 지배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현세구원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산물이<sup>25)</sup> 아닌가 한다. 중앙과 지방사회를 막론하고 지배계층은 그들 나름대로 불화 제작과 사경 등의 신앙형태를 통해 현실이외적인 구원을 추구했으며, 대다수의 일반 민들도 비록 막대한 재원을 들이는 불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구원을 위한 신앙형태는 마찬가지였다. 체원은 비록 그가 주로 활약한 곳이 해인사, 반룡사 등을 중심한 경상도 일원이었으며, 또 그를 지원한 단월들이 주로 경주 지역의 향리층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만을 겨냥해서 관음신앙의 불교관을 피력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이자 요청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러면 관음신앙과 관련된 당시의 사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시기 관음신앙은 화엄종이라는 특정 종파만이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원간섭기로 접어든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에 가장 핵심적인 종파는 선종으로는 수선사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부각된 가지산문, 천태종에서는 백련사의 성격을 변질시키면서 그 계승을 표방한 묘연사 계통 등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그리고 무신집권기에는 이전에 비해 명맥만 유지했지만 교종으로서 가장 핵심 세력이었던 화엄종, 법상종 등도 이 시기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다. 특히 화엄종은 고려대장경 간행에 守其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의상-균여-수기를 계승하는 흐름이 교단을 주도하였다. 어쨌든 당시 대표적인 불교종파는 그들이 표방하는 사상·신앙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관음신앙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가지산문의 경우는 보각국존 일연이 주목된다. 대몽항전기를 거쳐

25) 金英美, 「고려시대 불교와 전염병 치유문화」, 『이화사학연구』 34, 2007에서는 고려 후기 전염병 치유를 위해 관음신앙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6) 蔡尙植, 「高麗後期 佛敎史의 전개양상과 그 경향」, 『歷史敎育』 35, 1984.



원간섭기로 접어들면서 수선사를 대신하여 불교계의 중심으로 등장한 가지산 문은 일연을 정점으로 그들의 세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일연은 간화선에 입각한 선승으로서 교학과 제자백가에도 밝았지만 그의 만년에는 『삼국유사』라는 역사서를 찬술하기도 하였다. 그가 어떤 연유로 『삼국유사』를 지었는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원간섭기로 접어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상·신앙적으로 현세구원적인 측면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다른 신앙보다도 특히 관음신앙을 강조한 내용이 많이 수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27)</sup>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삼국유사』를 찬술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역대년표』를 간행한 인흥사를 주목하고, 아울러 이곳에서 관음신앙을 널리 유포하기 위해 『法華經普門品』(1275년)과 『大悲心陀羅尼經』(1293년) 등을 간행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sup>28)</sup>

관음신앙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전들은 『法華經普門品』, 『화엄경』 「入法界品」, 『大悲心陀羅尼經』 등을 들고 있다. 이 중 『보문품』은 『법화경』의 제25품으로서 원래 명칭은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이며, 독립된 경전으로 취급하여 『觀音經』이라 할 정도로 관음신앙의 근본 경전이다. 그 내용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설한 것이며 현세구원적·실천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대비심다라니경』은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의 줄인 이름이며, 간단히 『千手經』이라고 하여 일상화된 경전으로서 『보문품』과 더불어 실천적 관음신앙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그 내용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설한 것이며 현세구원적·실천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성격을 띤 경전을 선사상을 표방하던 가지산문에서 두 종이나 간행, 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음신앙을 중시했음을 말해 준다.

27) 金煥泰, 『三國遺事 所傳의 新羅佛敎思想研究』, 신흥출판사, 1979.

鄭炳三, 「高麗後期 觀音信仰」, 『丹豪文化研究』 창간호, 1996, 80~82쪽.

28) 蔡尙植, 「至元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1986;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이렇듯 13세기 후반기에 인홍사가 현실적 구원과 실천적 성격을 띤 관음 신앙을 표방하면서 다라니신앙을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근 30년에 걸친 대몽항쟁이 실패로 끝나고 원간섭기로 고려사회가 재편되어 가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된다. 일연은 무신집권 시기와 전국토를 폐허로 만든 몽고와의 전쟁 와중에서 민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들을 왕정복고의 지지기반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일연은 오랜 전란에 지친 민중들로 하여금 구원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의 일환으로 민중적 성격을 띤 불교를 표방했던 것이다. 한편 이민족의 침략이 야기한 민중의 고통과 복속국으로 전락한 현실은 일연에게 있어서 민족의 위기감으로도 발전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의식으로 『삼국유사』의 저술을 시도했던 것이다.

결국 실천적·현실적 성격을 띤 관음신앙이나 밀교의 다라니신앙에 바탕한 이 시기 일연의 사상적 편향은 현실인식의 산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삼국유사』 찬술의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이민족에 복속된 현실이 가져다 준 민중의 고통과 참담한 사회상황은 일연으로 하여금 사상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그 결과 그가 귀착한 세계는 현세구원적인 관음신앙의 표방과 민중의 삶을 역사서로 승화시킨 『삼국유사』의 찬술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법상종에서도 가지산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惠永(1228~1294)이 補陀洛迦山에 상주하는 白衣觀音에 歸命하고 無量壽國 왕생을 발원하는 참회 문인 ‘白衣觀音禮懺文’에 주석을 붙인 『白衣解』를 지었다. 혜영은 『金剛頂經』의 觀自在菩薩心眞言을 강조하였는데, 一切如來가 잠시라도 이를 칭송하면 三昧가 顯現하며 일체의 두려움과 厄難, 災難, 질병과 번뇌 등을 모두 소멸해 준다고 하였다.<sup>29)</sup> 『백의해』는 다분히 관음신앙과 밀교적인 요소가 결합된

29) 李萬, 「高麗時代의 觀音信仰」, 『韓國觀音信仰研究』, 동국대 출판부, 1988, 146~147쪽.

성격을 띠고<sup>30)</sup> 할 수 있다. 혜영은 충렬왕 16년(1290)에 사경승 1백 명을 거느리고 원의 연경에 가서 원 세조에게 금자로 쓴 『금자법화경』을 헌납하고 돌아온 인물로 뒤에 弘眞國尊에 책봉되었다.<sup>31)</sup> 이러한 위치에 있던 혜영이 관음신앙을 강조했다면 당시 법상종의 신앙적 경향 가운데 관음신앙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불교계에서 관음신앙을 강조한 것은 불화 제작과 사경 등의 신앙형태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전하는 140여 점의 고려불화 중 관음도는 78점이고 獨尊圖만 해도 40점이나 된다. 독존도의 유형은 水月·白衣·千手 관음도가 있고, 竝立圖의 유형은 관음·지장보살, 아미타불 협시보살도인 삼존도와 8대보살도 등이 있다.<sup>32)</sup> 독존도 중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수월관음도이다. 이 시기에 수월관음도가 가장 많이 조성된 배경은 무엇인지, 곧 사상적·신앙적 배경과<sup>33)</sup> 세속적인 기반은 어떠한지는 주목된다. 여기서 수월관음도를 비롯한 불화가 조성된 사상적·신앙적 기반에 대해 검토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유행한 관음신앙이 만든 산물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현전하는 사경은 불화에 비해 개인 소장이 많아 유물에

鄭炳三, 「高麗後期 觀音信仰」, 『丹豪文化研究』 창간호, 1996, 84쪽.

30) 李萬, 위의 논문, 146쪽.

31) 『高麗史』 권30 세가 30, 충렬왕 16년 3월 경신 및 4월 정유에 각각 35명, 65명 합 100명의 사경승을 파견하고 있다. 이때 이들을 이끈 인물이 惠永이라는 사실은 「桐華寺弘眞國尊碑」, 『朝鮮金石總覽』(上), 조선총독부, 1919, 597쪽에 나온다.

32) 이언화, 「高麗後期 觀音圖의 조성배경과 특징」, 부산대 대학원사학과 석사논문, 2007, 17~38쪽, 참조. 고려시기에 조성된 불화에 대해서는 자료집과 많은 연구성과가 나왔지만 아직 논란이 많은 형편이다.

33) 鄭炳三, 앞의 논문, 1996, 90~91쪽에서는 수월관음은 곧 양류관음이며, 『화엄경』과 밀교계 관음다라니 경전 내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黃金順, 「高麗 水月觀音圖에 보이는 『40華嚴經』 영향」, 『미술사연구』 14, 2003에서는 『화엄경』 40권본에 많은 圖像 전거를 두고 있고, 또 『40화엄』에서 관음이 설하고 있는 觀音淨土 往生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언화, 위의 논문에서는 『화엄경』 「입법계품」과 『법화경』 「보문품」의 영향이며, 나아가 두 경전을 포괄하는 『천수경』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최근 새롭게 정리하여 밝힌 내용을<sup>34)</sup>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려후기에는 『법화경』, 『화엄경』 등이 주로 사경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보면 이 경전들도 관음신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은 많은 양의 사경을 주도했을 것이며, 「보문품」의 관음신앙뿐만 아니라 영험과 공덕을 통한 현세구원적인 신앙을 강조했다고 보아진다.<sup>35)</sup>

이상에서 관음신앙은 체원과 그가 속한 화엄종에서만 강조한 것은 아니며, 당시 시대적인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회계층적으로 볼 때에도 일부 귀족과 소수 지배계층만의 전유물로 보기도 힘들다. 관음신앙은 義湘 이래 낙산관음 설화와 결합하면서 전통적으로 일반 민들과 함께 호흡한 소박한 신앙이었으나, 이 시기에 오면 공덕과 영험을 중시하는 신비적인 요소와도 결합하여 사치한 귀족적인 불교로 성행하게 되었다. 곧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러한 산물이 불화와 사경, 대규모 불사 등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체원은 어떠했을까. 체원은 그의 출신과 저작활동을 보면 의상-균여-수기로 이어지는 실천적이면서 일반 민에 가깝다고 하겠으나, 몇 점 남아 있는 사경을 보면 귀족적인 흐름과도 멀었다고 볼 수는 없다.

## 5. 맺는말

고령에 소재한 반룡사는 어떤 역사적, 사상·신앙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이를 요약하는 선에서 맺는말로 대신한다. 우선 반룡사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라 애장왕 3년(802)에 해인사와 같은 시기에 건립하였

34) 권회경, 『고려의 사경』, 글고운, 2006.

35) 충숙왕·충혜왕 때 활약한 천태종 승려인 了圓이 지은 『法華靈驗傳』은 당시 분위기를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고 전하지만 근거는 희박하다. 반룡사의 다층석탑과 동종은 반룡사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다층석탑의 조성시기는 문헌자료와 연결하면 고려중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물 외에 반룡사에 관련된 문헌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현, 불우, 반룡사 기록과 『拙叢千百』 권1, 「送盤龍如大師序」가 주목된다. 전자에는 원 세조 때의 榜文과 李仁老·朴孝修·柳方善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방문’을 검토한 결과 방문을 내린 사찰은 현 반룡사가 아닐 것으로 보았다. 당시 몽고군이 주둔한 창원의 남쪽에 ‘반룡산’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반룡사에 시를 남긴 李仁老·朴孝修·柳方善 등에 대해 살핀 결과 이인로는 「送盤龍如大師序」의 기록에 보이는 승통 寥一의 조카이기 때문에 반룡사와는 인연이 있었던 인물로 보았으며, 박효수는 충선왕—이제현—체원 등과 유대가 있어 반룡사에 왔으며, 이를 계기로 반룡사에 시를 남겼다고 보았다.

한편 「送盤龍如大師序」를 검토한 결과 반룡사를 실제 개창한 인물은 승통 寥一인데, 그는 李仁老(1152~1220)의 大叔으로 화엄종 사찰인 개경의 흥왕사 승통이었으며, 최충헌을 모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세속의 출신이 仁州李氏인 그는 화엄종의 승려로서 승통에까지 이르고 개경의 흥왕사를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당시 최고 집정자인 최충헌에게 대항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단한 정치적·종교적 기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가졌던 인물인 요일이 개경에서 벗어나 반룡사에 정착하여 반룡사의 사격을 크게 높인 연유는 알 수 없다.

아마 요일은 중앙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떨어진 화엄종단의 부흥을 위해 반룡사를 터전으로 삼아 인접한 해인사, 법수사 등과 나아가 경상도 지역의 화엄종 소속 사찰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한 것은 아닌가 한다.

이러한 반룡사에는 충숙왕대에 이르러 화엄종의 원로들이 의논한 뒤 ‘法水

堂頭'인 '覺海如公'을 추천하여 주석케 했는데, 그는 경주이씨로서 이제현의 가형이며, 해인사 사간관에 수종의 자료와 몇 점의 『화엄경』 사경을 주도한 바 있는 바로 體元이다. 그의 법호는 木庵, 向如라고도 했으며 覺海大師의 謚號를 받았다. 그가 남긴 저술을 검토한 결과 관음신앙을 강조하고 또 이를 통해 공덕과 영험까지도 표방하고 심지어 민간신앙과 결합된 성격을 띤 염불신앙을 수용하는 사상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곧 체원이 중심이 된 14세기의 화엄종은 당시 불교계의 판도로 볼 때 해인사를 중심한 지방사회에서 신앙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불교관을 표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체원의 불교관은 신앙적인 측면과 심지어 신비적인 영험과 공덕을 강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면서 한 단계 진전된 화엄사상을 표방하지는 못한 셈이다. 여기서 중심되는 것은 관음신앙이었다. 이는 체원의 불교관을 통해 본 화엄종의 경향일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계의 공통된 사상·신앙적 경향이었으며, 대몽항전, 삼별초 항쟁, 동정군의 전란과 이에 계속된 이민족의 지배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현세구원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산물이었다.

본래 관음신앙은 義湘 이래 낙산관음 설화와 결합하면서 전통적으로 일반 민들과 함께 호흡한 소박한 신앙이었으나, 이 시기에 오면 공덕과 영험을 중시하는 신비적인 요소와도 결합하여 사치한 귀족적인 불교로 성행하게 되었다. 곧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러한 산물이 불화와 사경, 대규모 불사 등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체원은 의상-균여-수기로 이어지는 화엄종의 실천적이면서 대중적인 경향을 계승한 인물이라고 하겠으나, 그가 관여한 사경 등을 보면 귀족적인 흐름과 멀었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문헌】**

『高麗史』

『東文選』

『邑誌』 1(경상도 편 1,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82.

『朝鮮寺刹史料』 「盤龍寺記」

『戶長先生案』 서울대 古圖書；許興植編,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1976.

권희경, 『고려의 사경』, 글고운, 2006.

金煥泰, 『三國遺事 所傳의 新羅佛敎思想研究』, 신흥출판사, 1979.

李基白 편,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제2판), 일지사, 1993.

金英美, 「고려시대 불교와 전염병 치유문화」, 『이화사학연구』 34, 2007.

李玠夷, 「『高麗史』元宗·忠烈王·忠宣王世家 중 元朝關係記事의 註釋研究」, 『동양사학연구』 88, 2004.

李 萬, 「高麗時代의 觀音信仰」, 『韓國觀音信仰研究』, 동국대 출판부, 1988.

이언화, 「高麗後期 觀音圖의 조성배경과 특징」, 부산대 대학원사학과 석사논문, 2007.

鄭炳三, 「高麗後期 觀音信仰」, 『丹豪文化研究』 창간호, 1996.

蔡尙植,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규장각』 6, 1982.

蔡尙植, 「高麗後期 佛敎史의 전개양상과 그 경향」, 『歷史敎育』 35, 1984.

## Abstract

**Banryong Temple(盤龍寺) at Goryoung(高靈)  
and Chewon(體元)'s Thought of Hwaŏm**

Chae, Sang-Sik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features of the thoughts and faith which Banryong Temple at Goryoung had displayed in Koryŏ Dynasty. To begin with, the interrogations of written sources on Banryong Temple shows that it had been built up at the same time when Haein Temple had been set up in the year three of King Aejang of Silla(A.D. 802). It is more likely that the multi story-stone pagoda handed down up to now at Banryong Temple had been elected at the middle of Koryŏ.

Of the written sources, there is a public notice(榜文) which Sejo of Yüan had granted. It seems that it had granted not to Banryong Temple but to Mt. Banryong south of Changwon where the Mongolians had stayed at that time.

According to Songbanryongyeodaesaseo(送盤龍如大師序), it was the master successor Yoil(寥一) who had really established Banryong Temple. He, an older uncle of Lee In-Ro(1152~1220), was the master successor of Heungwang Temple and had been suspected of conspiring to do harm to Choi Choong-Heon. Probably, he intended to rehabilitate Hwaŏmjong order estranged from central power going out from Gaekeong into Banryong Temple. He may have directed toward the consolidation of solidarity between temples of Hwaŏmjong at Kyeongsang region having Banryong Temple as a stronghold.

Meanwhile, Chewon held newly the Joobeop(主法) position under the reign of King Choongsook. As the Lees of Gyeongjoo, he was an older brother of Lee Jehyeon, remained several sources to Saganpan of Haein Temple, and had copied Hwaŏm Sutra. The interrogation of his writings shows that he had stressed the faith of Avalokitêsvara(觀音) and claimed



for his virtues and miracles by this faith. He even displayed the trend of thought combined with a folk belief. Thus, Chewon's Hwaom of the fourteen century had failed to present the thought taken a step forward by exhibiting their vision of Buddhism inclined to a faith.

The central to this thought was the faith of Avalokitêsvava, which was a common trend of the Buddhist milieu at that time. This was an output of making every effort to search the actual salvation from the terrible real of successive wars and the control by other peoples.

Initially, the faith of Avalokitêsvava was conventionally a naive faith closed with folk after it had mixed with the tale of Naksan Avalokitêsvava from the age of Ŭisang(義湘) on. By that time, it combined with the mystic factors focused on the virtues and miracles and became to be prosperous as an expensive faith of the aristocracy. It can be said that this dual character of it had been reflected on the Buddhist paintings, the copies of the Sutras, and the large scale Buddhist services. The copies of the Sutras related by Chewon demonstrates that he did not keep away from the aristocratic trends, though he had succeed to the practical and popular trends of Hwaom.

#### Key Word

Banryong Temple, Yoil, Chewon, the Faith of Avalokitêsvava, Copies of the Sutras, Public notice granted by Sejo of Yüan

- 논문투고일 : 2008. 6. 4. 심사시작일 : 2008. 6. 13. 심사완료일 : 2008. 6. 20.